2000년 이후 『보그』 지에 나타난 '느림'의 패션 경향

함연자¹⁾ · 박주희²⁾

¹⁾동의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²⁾사디 패션디자인학과

The 'Slow' Fashion Characteristics Expressed on 『Vogue』 Magazine Since 2000

Youn-Ja Ham¹⁾ and Ju-Hee Park²⁾

¹⁾Dept. of Fashion Design, Dong-Eui University; Busan, Korea,

²⁾Dept. of Fashion Design, Samsung Art & Design Institute; Seoul,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slow' fashion style expressed on fashion magazine in pursuit of sociocultural paradigm change towards 'slowness'. As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content analysis for *Vogue* magazine has been undertake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the concern toward eco-friendly ethics has been involving simple style which is long-lasting, junky style which is reused or recycled, and sustainable style which is motivated by nature. Second, the interest toward local diversity has been involving ethnic exotic style which is inspired by global culture and vintage retro style which is applied the old tradition. Third, the attention toward self-made has been involving personal style which is produced through the process such as made-to-measure, made-to-order and reform. Also, anonymous dresses can be personalized easily under mix-n-match. In Conclusion, the 'slow' fashion characteristics has been expressed on contemporary mass fashion in various way and the 'slow' fashion would be expected to improve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toward sociocultural paradigm of 'slowness'.

Key words: slow fashion, slowness, eco-friendly ethics, local diversity, self-made

1. 서 론

산업주의 시대 양적 팽창을 기반으로 하는 '빠른' 속도 위주의 삶에서 21세기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느린' 삶에 대한 추구는 1986년 '슬로 푸드(slow food)' 운동에서 시작된 '느림(slowness)' 운동을 중심으로 오늘날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중요한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속도 위주의 경제와 산업주의 가치관이 변하면서 '슬로 라이프(slow life)', '시티슬로(Cittaslow)' 등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운동은 세계 곳곳에서 추종되고 있으며, '슬로리테일(slowretail)', '슬로 트래벨(slow travel)', '슬로 쇼핑(slow shopping)', '슬로 디자인(slow design)', '슬로 페이스(slow pace)', '슬로 하우스(slow house)', '슬로 에이징(slow aging)', '슬로 에듀케이션(slow education)' 등 구체적인 분야의 문화 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처럼 '삶의 속도를 늦추자'는 취지의 '슬로' 운동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가치기준 대신 새로운 가치 기준인 '느림'의 패러다임을 제

시하며 변화를 이끌고 있다.

패션은 그 시대의 문화 현상들을 표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많은 복식학자들은 패션의 변화가 사회적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느림'의 패러다임"에 관한 선행연구(함연자, 2009)를 통하여 '빠른' 속도위주의 대량생산과 소비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주의 시대의 패션 패러다임은 경제논리에 의한 무한한 자연 개발로 심각한 자연의 훼손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세계 문화의 획일화로 문화적 전통을 훼손하고, 인간을 기계의 노예로 전락시킴으로서 인간성을 훼손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만들었음을 고찰하였고, 이러한 폐해에 대한 인식 속에 '빠른' 속도의 패션 패러다임은 자연, 전통,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과 상호간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느림' 패션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고찰한 바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는 '느림'의 패션은 미국과 유럽의 '느리게 살기' 운동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고, 그러한 사례가 미국 New York Times 등의 중요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되고("느리게 살기", 2008), 그리고 '느림'의 패션에 동참하는 의류회사와 디자이너들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영국 Guardian지의 최근 기사("Slow fashion", 2010)에 의하면, 하이패션 위주로 빠르게 변화하던 패스트 패션의 시대가

Corresponding author; Ju-Hee Park

Tel. +82-2-3438-0359

E-mail: zenn95@hanmail.net

가고 지금은 ‘느림’의 패션 시대로 볼 수 있다. ‘느림’의 패션은 환경에 대한 책임감과 쇼핑에 대한 윤리성, 그리고 옷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한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스타일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에 있다.

‘느림’의 패션 경향은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 패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흐름으로서 이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 패션의 향방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느림’의 경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중적인 패션 잡지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한 고찰을 통하여 ‘느림’의 패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선행연구(함연자, 2009)를 통하여 고찰된 ‘느림’의 패러다임을 표현하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표적 패션잡지 『보그(Vogue)』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 내용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느림’의 패러다임이 표현된 현대 패션의 경향을 고찰한다. 미국의 『보그』지를 선택한 이유는 미국의 대중 패션이 세계의 패션을 주도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선행 복식 연구자 Bigelow(1979), Kroeber & Richardson (1973) 등이 미국의 『보그』지는 미국 패션의 특성을 대표하기 적합하고, 대중성을 지닌 잡지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시대를 대표하는 대중적인 성격을 지녀서 현대 패션의 경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보그』지의 기사 중 매월 새로운 트렌드와 스타일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뷰(View)’의 면을 중심으로, ‘느림’의 패러다임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서술하고 있는 기사의 빈도를 살펴봄으로써 ‘느림’의 패러다임이 대중적인 패션에 의미있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기사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하여 ‘느림’의 패러다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내용 분석은 21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인 2000년부터 2008년까지로 한다.

선행연구에서 ‘느림’의 패션 패러다임은 첫째, 자연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친환경의 윤리성, 둘째,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반영하는 고품질의 다양성, 그리고 셋째, 개인이 참여하여 스스로 만드는 자율성으로 고찰되었고, 패션에서 ‘느림’의 패러다임을 내포하는 형용사는 이를 토대로 한영사전(시사영어사, 1999)과 패션용어사전(Vergani, 2006)에서 이에 상응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친환경의 윤리성은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으로의 인식전환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ecological’, ‘sustainable’, ‘organic’을, 그리고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패션을 설명하는 용어에서 ‘simple’, ‘recycle’을 도출하였다.

전통문화의 다양성은 지역 특유의 전통문화와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의미’있는 고품질의 패션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Table 1. 2000년 이후 Vogue지에 나타난 ‘느림’의 패러다임에 대한 빈도 분석

‘느림’의 패러다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친환경의 윤리성	1	0	1	0	0	2	0	5	2	11
전통문화의 다양성	2	3	5	0	4	3	1	1	3	22
스스로 만드는 자율성	1	1	2	0	1	1	1	2	2	11
‘느림’의 패러다임에 관한 기사수	4	4	8	0	5	6	2	8	7	44

Table 2. 2000년 이후 Vogue지에 나타난 ‘느림’의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 분석

‘느림’의 패러다임	연도	조형적 특징		
		‘느림’의 특성	스타일	아이템
친환경의 윤리성	2000	-recycle	-junky style	-unconventional tailoring, mini skirt, denim-patch skirt, leather halter, corset belt with tablecloth, vintage bag, t-shirt, flag, antique fabric
	2002	-recycle	-classic	-ternch, jersey long dress, white cotton shirt, crop top
	2005	-simple	-geometric, functional	-military shirt and skirt
		-simple	-chic basic	-turtleneck, bubble skirt, tweed jacket schoolboy blazer, denim trench coat
	2007	-sustainable	-simple	-hand-painted, applique canvas shoppers bag
		-organic	-eco-ethical chic	-ethically made sneaker, cotton bag
		-sustainable	-environmental-design	-clothing collection created from natural fabrics such as hemp, cashmere, silk, and bamboo
		-organic, recycle	-simple	-organic cotton and recycled finishings
	2008	-ecological, recycle	-minimal classic	-navy jacket, lean jean, striped T-shirt, coat, sweater, skirt
		-sustainable, recycle	-junky style	-clothes made out of party balloons and sofa covers, wigs out of recycled fur coat
		-eco, ethical	-sustainable style	-organic silk cotton bias tanks, little green dress, vintage quilt

Table 2. 2000년 이후 Vogue지에 나타난 '느림'의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 분석(계속)

전통문화의 다양성의 다양성	2000	-hand-work -handmade	-Sicily -classic retro	-natural leather sequined skirt, boot, pashmina -pebbled leather bag with hand stitch
	2001	-handcraft, handmade -handiwork, craft -local, crafty	-Russian style -Latin -Latin, hippy, peasant style	-commissar hat, cossack overcoat, embroidered dress, patchwork gypsy skirt -top, skirt, trousers embellishing with beading, embroidery -stitching leather belt, embroidered mules and bags
	2002	-crafty -crafty -traditional, craftsmanship -crafted -craft	-retro, vintage, historical -bohemian, oriental for Istanbul -African -primitive -retro	-patchwork cardigan, embroidery trousers, peasant mini-smock, crochet shirt -18th century-style jacket, dress of vibrant embroidered roses -topstitched tote with African beads, fringed suede messenger -wood bag, buckle, necklace -feather-and-wool knit vest
	2004	-folklore -crafty -craftwork -local, folklore, handmade	-romantic ethnic -Indian -retro -Latin	-hand-crocheted sweater and skirt -drop earring, necklace painted Indian thread -crocheted bags -Brazilian fishing bag, floral skirt
	2005	-vintage -folklore -vintage, hand craft	-retro -Slavic -bohemian	-50's wool bouclisuit, doctor bag, -cossack boot, peasant skirt, gold pleats -floral jacket, white jersey tee, lace patch skirt
	2006	-handmade, native	-Philippine	-evening bag
	2007	-native tradition	-Alaska	-ring, bracelet
	2008	-vintage -handmade -tradition	-bohemian -ethnic from world apart -ethnic	-hand-printed jersey T-shirt dress details of flowers, of the natural world -necklace using embroidery techniques from India, Iran, Tibet, and Philippines -mixing sari with jacket
스스로 만드는 자율성	2000	-do-it-yourself	-unique	-school girl shirt and skirt
	2001	-personal, D.I.Y.	-unique	-embroidered and decorated jean
	2002	-personal -personal, remake	-unique, made-to-measure -made-to-order	-suit -trench coat
	2004	-do it yourself	-anonymous	-string bikini, white swim suit
	2005	-do it yourself, rework	-versatile, personalized	-mix and match basic item
	2006	-personal	-anonymous, feminine	-white little dress, wool coat
	2007	-personal -personal	-unique -ubiquitous, simple	-patchwork, quilt, collage bag, tunic -neutral tone knee length shift dress
	2008	-reform -personal	-preppy -classic	-jacket, shirt, short in tweed and paisley -white shirt and classic jean

'local', 'traditional', 'native'를, 그리고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패션을 설명하는 용어에서 'vintage', 'folklore', 'craft', 'handmade'를 도출하였다.

스스로 만드는 자율성은 개인이 단순히 소비하는 입장이 아닌 스스로의 패션을 창조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에서 'self-made', 'reform', 'do it yourself'를, 그리고 그러한 패션을 설명하는 용어에서 'personal style'을 도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2000년 이후 『보그』 지에 나타난 '느림'의 패러다임에 대한 빈도 분석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보그』지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친환경의 윤리성과 스스로 만드는 자율성에 대하여 언급한 기사는 각각 11건, 전통문화의 다양성에 대하여 언급한 기사는 총 22건으로 Table 1과 같다. '느림'의 패러다임에 관한 기사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나타났는데, 전통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았고, 친환경의 윤리성과 스스로 만드는 자율성에 대한 기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주로 시각적인 화려함을 통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패션지의 특성상 친환경의 윤리성과 스스로 만드는 자율성이 다루기 어려운 주제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느림의 패러다임과 관련하여 사용된 구체적 용어와 스타일, 아이템은 Table 2와 같다.

친환경의 윤리성과 관련하여 사용된 용어는 생태학자들의 사상과 방식을 참조하여 패션에 접근함을 의미하는 용어인 sustainable이 3건, ecological과 organic 등이 각각 2건씩 사용되었고, 그러한 사상을 반영하는 패션의 특성을 설명하는 용어인 recycle이 5건, simple이 2건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전에는 주로 패션의 특성을 설명하는 용어인 recycle, simple 등의 용어만이 언급되었던데 반해, 2007년 이후에는 생태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인 sustainable, ecological, organic 등의 용어가 패션지에 나타나면서 패션의 특징을 설명하는 용어인 recycle, simple 등이 함께 언급되었다. 이는 패션에 가시적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생산하는 과정과 방식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시사하며, 윤리적 패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통문화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사용된 용어는 패션의 디테일이 만들어진 방법을 의미하는 handmade, hand-work, handcraft, craft 등의 용어가 14건으로 가장 잦은 빈도로 나타났고, 패션의 테마를 함축하는 용어로 traditional, vintage, folklore 등이 각각 3건, local, native 등이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패션의 테마를 함축하는 용어인 traditional, vintage, folklore, local, native 등의 용어가 언급될 때 수작업을 의미하는 handmade 등의 용어는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전통문화의 표현에 있어서 '수작업'이 중요한 수단임을 의미한다.

스스로 만드는 자율성과 관련하여 사용된 용어는 개인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패션 스타일을 의미하는 'personal'의 용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이 제작과정에 참여함을 의미하는 'do it yourself'가 4건, 'reform', 'remake'와 'rework'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personal'의 용어가 사용될 때는 'do it yourself', 'remake' 등의 용어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상보다 '느림'의 패러다임과 관련된 기사가 많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빠른 유행의 변화를 전달함으로써 판매를 증진시키는 대중 패션지의 특성상,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상반되는 '느림'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림'의 패러다임을 표현하는 기사는 2000년부터 꾸준히 나타났고 특히, 시

각적으로 표현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시되는 다분히 가치지향적인 친환경의 윤리성과 관련된 기사가 2000년대 후반에 증가된 추세로 '느림'의 패러다임이 대중적인 패션에서 주목받고 있는 경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3.2. 2000년 이후 『보그』 지에 나타난 '느림'의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 분석

3.2.1. 친환경의 윤리성

친환경의 윤리성과 관련한 용어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 2000년대 초반에는 재활용(recycle) 패션과 트렌드에 의해 쉽게 폐기되지 않는 소박한 클래식 스타일을 중심으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표현되었으며, 2007년 이후에는 '에코-윤리적 슈크(eco-ethical chic)', '환경적 디자인(environmental-design)'이라는 용어 등이 함께 등장하며 스타일 자체 보다 패션계에 나타나고 있는 윤리적 제품 철학과 실천 등이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재활용 패션은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쉽게 쓰레기로 버려지고 또 다른 소비를 유발하는 악순환에 의해 유발되는 환경에 대한 파괴를 방지하려는 의식으로부터 쓰레기의 재사용, 재생을 통한 순환 사용의 방식을 추구하는 혁신적 디자이너들에 의해 나타났다. '정키 스타일링(Junky Styling)'의 재활용 패션으로 작품 성격을 규정하는 Sanders와 Seager 같은 젊은 디자이너들("please recycle", 2000)은 1991년 Margiela가 버려진 양말을 이용하여 세련된 스웨터를 발표했던 방식 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표현했다. 이러한 디자이너들이 재활용하는 작업 방식은 관습적인 형식을 따르기보다 19세기의 테이블클로스와 빈티지 루이비통 가방 등을 분해하여 색색한 미니스커트로 창조하고, 중고 진(jean), 여행기념 티셔츠, 100년 된 성조기 등을 이용하여 스트리트 패션으로 재작업하는 등 이미 유행이 지나간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가치 없이 버려진 것을 침단의 아방가르드 위치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Fig. 1은 Sage, Preen, Le Bihan 등에서 오래되어 낡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현대적인 스트리트 감각으로 재창조한 정

Fig. 1. 2000년 3월, 미국 Vogue, p.296.

Fig. 2. 2007년 11월, 미국 Vogue, p.200.

Fig. 3. 2007년 5월, 미국 Vogue, p.124.

키 스타일이다.

소박한 스타일의 추구는 대량 소비와 대량 생산의 순환 속에서 발생하는 낭비와 그에 따른 환경 훼손에 대한 책임의식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패션의 속도(pace)'에 대해 언급한 기사("why less", 2007)에 의하면, 직물을 생산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산과 소비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들이 선택하는 스타일은 생산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소박한 의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클래식 아이템과 Margiela와 Karan 처럼 한 시즌만을 위한 옷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는 디자이너 브랜드, 그리고 아동들의 교육 기금 제공 등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브랜드의 제품 등이며, 윤리적·환경적 관점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된다. Fig. 2는 자신의 정원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채소를 직접 키우는 친환경의 삶을 추구하는 여성이 추구하는 소박한 스타일을 표현한다.

2007년 이후 나타난 기사에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되어 소개된 패션은 윤리성을 불편하게 강조하기보다 일상적인 편안함과 동시대성으로 쉽게 접근 가능한 것으로 발전되었다. 영국의 Hindmarch가 발표한 Fig. 3의 "I'm not a plastic bag"의 표어가 아플리케된 평범한 사각 형태의 캔버스 쇼핑백이 대중적으로 커다란 인기를 얻었고, 현대적인 스타일로 외형적인 특이함을 추구하기보다 쿡, 오가닉 먼, 그리고 천연 실크 등 "그린(green)" 섬유를 이용하여 '신선하게(cool)' 제작되는 의류는 착용하는 사람의 느낌을 좋게 만든다는 디자인 철학을 전달하는 패션으로 주목받았다.

친환경의 윤리성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 패션의 경향을 요약하면 지나치게 장식이 많거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패션보다 편안함과 실용성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소박한 스타일과, 재활용 소재를 이용하는 정키 스타일, 그리고 오가닉 소재, 표어와 자연환경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활용하여 복식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윤리적 스타일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패션 스타일은 대중적인 인기를 가진 디자이너들과 동시대적 감각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들의 참여로 더 이

상 비주류로 여겨지지 않고 쉽게 접근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처럼 대중적인 인기를 가진 디자이너들의 의류와 '친환경'의 매혹적인 조합은 패션을 추구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개념에서 나아가 환경을 보호하고 함께 사는 사회 구성원을 고려하는 이타적인 개념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

3.2.2. 전통문화의 다양성

전통문화의 다양성과 관련한 용어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 다양한 지역의 전통 문화를 영감으로 하는 '에스닉(ethnic)', '이국적(exotic)' 스타일과 서양의 전통문화를 영감으로 하는 오래된 것으로의 회귀로 '빈티지(vintage)', '레트로(retro)' 스타일이 2000년 이후 꾸준히 나타나고 있었다.

에스닉, 이국적 스타일에서 나타난 특징은 러시아, 스페인, 브라질, 멕시코 등 서구 문화에 비교적 친숙한 문화 뿐 아니라 이스탄불, 필리핀, 알래스카, 시실리 등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문화를 테마로 전개되는 등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의 전통 문화를 영감으로 한 스타일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조형적 요소는 민족복의 형태와 독특한 문양을 응용하는 것이었는데, 역사와 자연에서 얻은 모티브를 손으로 작업한 자수, 퀼트, 비딩, 아플리케, 그리고 뜨개질 등의 디테일을 의상과 액세서리 디자인에 적용하여 표현했다. Fig. 4는 2002년 Ribeiro, Mami, Adrover, Fendi 등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영감을 다양한 기법의 수공예로 표현한 패션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지역 특유의 방식을 따르는 '수공예'는 패션에 전통문화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독특한 유일성과 격조 높은 품격을 제공한다. Fletcher(2008)가 제안했던 지역의 규모, 자원, 요구에 맞추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만드는 고품질의 패션을 의미하는 '지역적(local) 디자인'의 핵심 역시 수공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공예성을 이태리 시실리의 토속적 수공예 전통을 이어받은 Pecoraro("the palermo", 2000)은 '장인적 디자인(artisanal design)'이란 용어

Fig. 4. 2002년 1월, 미국 Vogue, p.38

Fig. 5. 2000년 3월, 미국 Vogue, p.270.

Fig. 6. 2002년 1월, 미국 Vogue, p.41.

로 언급하였다. 그는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계속해서 입혀질 수 있는 진정으로 특별한 것'을 창조하기 위하여 장인적 수공예의 방식을 적용하여 개별적인 디테일을 강조하는 작업방식을 택하고 있다. Fig. 5은 인디아와 시실리의 장인들이 정교하게 수작업 한 스웨이드-시퀸(suede-sequin)이 달린 스커트와 부츠로 이태리의 상업적 패션의 수도인 밀라노에 패션의 장인 정신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오래된 것으로의 회귀는 18세기부터 50년대까지 나타났던 서양복식이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되어 표현된 빈티지, 레트로 스타일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도 나타났다. Fig. 6은 일부 의상을 일정기간 동안 땅속에 묻어 흙 딱지가 앉은 채로 사용하면서, 다른 시대로부터 기원하는 의상을 부분적으로 겹쳐서 제작함으로써 한 벌의 의상을 통하여 물리적·문화적 측면에서 시대성이 복합된 드레스를 표현하는데, Chalayan은 이런 작업을 통하여 '시간'이 패션에서 갖는 의미에 대한 관심을 극단적으로 표명했다.

전통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으로 패션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지역의 '전통문화'를 컨셉으로 새로운 패션이 제안되고 있었으며, 패션을 촉발하는 영감으로서 다양한 지역의 전통적인 미의식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주목된다. 또한 서양 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과거의 것에 대한 그리움과 그에 내재된 새로움을 발견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패션의 과거회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패션의 미적 특성은 패션의 창조과정이 예술품과 같이 공들여 제작되고, 전통 속의 이야기를 간직하게 함으로서 각각의 의상이 독창적이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가치가 퇴색하지 않으며, 따라서 '토틀 룩'의 한 부분이 아닌 개별적 특성과 품질로 평가된다.

3.2.3. 스스로 만드는 자율성

스스로 만드는 자율성과 관련한 용어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 유명 브랜드나 디자이너가 제공하는 대중적 디자인 대신, 개인이 스스로의 개성에 맞는 패션을 창조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가능한 '개인적(personal) 스타일'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 스타일은 대량생산에 의해 강요되는 똑같은 취향으로부터 탈피하여 개인의 취향을 패션에 반영함으로써 자신만의 유일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제작과정에 참여하거나, 기성품을 이용하여 독특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소비자가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현상("마케팅의 새로운", 2005)은 오늘날 감자집에서부터 자동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온라인 채널을 통해 기업과 소통한다. 의류산업에서도 Davis("패션업계의 Mass"에서 재인용, 2004)가 점점 소비자의 체형에 맞추어 개인화되어가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사용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Mass Customization)'을 예견한 이래 리바이스, 나이키 등을 중심으로 대량생산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량맞춤의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온라인이라는 대중매체가 아

Fig. 7. 2002년 11월 미국 Vogue, Fig. 8. 2001년 9월, 미국 Vogue, p.274.

닌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서, 대량맞춤이 아닌 장인들이 '나만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 주는 '메이드 투 오더(made-to-order)'와 '메이드 투 메저(made-to-measure)'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특히, 고객의 지수를 쟁 후 그에 맞춰 패턴을 뜨고 재단을 하는 과정으로 주문과 제작의 전 과정이 단 한 명의 고객을 위해 이루어지는 '메이드 투 오더'("caught in", 2002)는 높은 가격과 최소성 뿐 아니라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Burberry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나만을 위해 고민하며 주문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 얻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제품이야말로 단순한 부의 과시가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투자로 여겨지는 경향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Fig. 7은 '메이드 투 오더(made-to-order)'에 의해 만들어진 코트에 최종적으로 고객의 이름을 새겨 넣음으로서 나만을 위해 제작되었다는 희귀성을 강조한다.

이미 제작된 기성품을 통하여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DIY, '리폼(reform)', '리메이크(remake)' 등을 통하여 개인적인 취향으로 간단하게 변형하는 방식들이 있었다. Fig. 8은 수공예로 레이스나 문양을 아플리케하고, 끝단을 독특한 모양으로 바꿈으로서 개인 취향의 청바지로 변형한 사례인데 자수, 리본 등을 이용한 장식은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처럼 자신만의 방식("west end", 2000)으로 고치고 '비틀어서(distort)' 자신의 것이 된 패션이 세련된 패션의 경향으로 여겨지는 추세에 있다. 평범한 모습을 개조하여 특별한 외양으로 재창조하는 것은 개인 뿐 아니라 유명 브랜드에서도 받아들이는 중요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Fig. 9는 Louis Vuitton에서 여러 가지 데님을 함께 콜라주 해서 제작한 히피풍의 가방으로 마치 개인이 리폼 한 듯 즉흥적이고 독특한 모습이다.

기성품을 통하여 개인의 취향을 표현할 수 있는 '퍼스널 스타일'과 관련된 기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특징 없는(anonymou)' 패션 아이템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는 점이다. 디자이너의 의도와 특성이 부각되지 않는 관습적인, 편안하고 실

Fig. 9. 2007년 3월, 미국 Vogue, p.358.

Fig. 10. 2007년 10월, 미국 Vogue, p.238.

용적인 형태의 코트, 스웨터, 드레스 등의 ‘특징 없는’ 아이템들을 ‘믹스 앤 매치(mix and match)’하여 개인의 아이덴티티와 감각을 보여주는 ‘퍼스널 스타일’로 재창조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었다. Fig. 10은 단순한 스트라이프의 드레스가 착용자에 의해 다른 감각으로 착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디자이너들의 입장(“who’s that”, 2006)에서 ‘특징 없는’ 패션을 제안하는 것은 창조자의 관점에서 ‘주도하는(directional)’ 것이 아니라 착용자의 입장을 위한 것이다.

스스로 만드는 자율성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 패션의 경향을 요약하면 유명 브랜드의 권위적·일방적 디자인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대신, 개인의 취향을 표현할 수 있는 ‘개인적 스타일’로 증식되거나 변이되고 있었다. 다양한 정보를 흡수한 개인들이 시간과 노력,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며 패션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창조되는 ‘개인화’된 룩은 개인의 직관과 감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삶의 태도인 ‘느림’의 패러다임이 현대 대중 패션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느림’의 패러다임을 표현하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표적 패션잡지 『보그』(Vogue)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해 고찰된 ‘느림’의 패러다임은 친환경의 윤리성, 전통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스스로 만드는 자율성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한영사전과 패션용어사전에서 이에 상응하는 용어를 추출하였다.

빠른 유행의 변화를 전달함으로써 판매를 증진시키는 대중 패션잡지의 특성상,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는 ‘느림’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기사를 게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림’의 패러다임을 표현하는 기사는 2000년부터 꾸준히 나타났다. 특히,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시되는 다분히 가치지향적인 친환경의 윤리성과 관련된 기사가 2000년대 후반에 증가되는 추세로 나타나 ‘느림’의 패러다임이 대중적인 패션에 중요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의 윤리성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 패션의 경향은 지나치게 장식이 많거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패션보다 편안함과 실용성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소박한 스타일과, 재활용 소재를 이용하는 정키 스타일, 그리고 오가닉 소재, 표어와 자연환경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활용하여 복식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윤리적 스타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패션 스타일은 대중적인 인기를 가진 디자이너들과 동시대적 감각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들의 참여로 더 이상 비주류로 여겨지지 않고 쉽게 접근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둘째, 전통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 패션의 경향은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다양한 지역의 전통문화를 영감으로 하는 에스닉, 이국적 스타일의 대두로 나타났고, 패션을 촉발하는 영감으로서 다양한 지역의 전통적인 미의식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주목되었다. 또한 서양 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과거의 것에 대한 그리움과 그에 내재된 새로움을 발견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빈티지, 레트로 스타일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패션 스타일의 중요한 특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특유의 수공예성으로 패션에 전통문화를 표현할 뿐 아니라 독특한 유일성과 격조 높은 품격을 제공함으로써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가치가 퇴색하지 않는다.

셋째, 스스로 만드는 자율성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 패션의 경향은 브랜드나 디자이너가 제공하는 일방적 디자인 대신, 개인이 스스로의 개성에 맞게 ‘개인적 스타일’로 변형시킴으로서 패션이 보다 다양한 감각으로 증식되고 있었다. 다양한 정보를 흡수한 개인들은 자신들만의 직관과 감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룩을 창조하는데 편하게 유행을 추종하기보다 시간과 노력,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며 개인의 독창적 스타일을 펼치고 있었다. ‘개인적’ 스타일의 특징은 ‘특징 없는’ 패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비틀고 개조하여 특별한 외양으로 재창조하거나, 믹스 앤 매치, 그리고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단 하나의 상품임을

강조하는 회귀성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대량생산을 바탕으로 대중 매체를 통하여 형성되는 대중의 취향인 유행에 맞추는 대신 자연의 지속 가능성, 오랜 기간 계승되어온 다양한 전통 문화의 가치, 그리고 스스로에게 맞는 의상에 대한 관심과 직접적 관여를 통한 표현을 추구하는 '느림'의 패션 경향이 현대 패션에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느림'의 패러다임 확산과 함께 물질지향의 대중적인 패션이 아닌 삶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느림'의 패션 경향은 단순히 개인적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패션의 개념에서 나아가 환경을 보호하고 함께 사는 사회 구성원과 개인의 만족을 고려하는 실천 방식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9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과제번호:2009AA137).

참고문헌

- 함연자. (2009). 현대 패션에 나타난 '느림'의 패러다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4), 527-536.
- '느리게 살기' 빠르게 확산. (2008, 2. 2). *조인스닷컴*. 자료검색일 2010, 7. 19, 자료출처 <http://article.joins.com>
- 마케팅의 새로운 대안 Customer-Made 기법. (2005, 5. 25).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4. 1,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엘리트 한영사전*. (1999). 서울: 시사영어사
- 패션업계의 Mass Customization 전략. (2004, 1. 13).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4. 1,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Bigelow, M. S. (1979). *Fahion In History*. Minneapolis: Burgess Publishing Company, pp. 257-271.
- caught in customs. (2002, 11). *American Vogue*, pp. 271-274.
- Fletcher, K. (2008). *Sustainable Fashion & Textile*. London: Earthscan, pp. 137-138.
- Krober & Richardson. (1973). *Fashion Marketing*. London: George & Unwin, pp. 47-104.
- please recycle. (2000, 3). *American Vogue*, pp. 296-297.
- Rouse, E. (2003). *코르셋에서 핑크까지* (이재한 역). 서울: 시지락 (원저 1989 출판), pp. 186-195.
- slow fashion: Forever yours. (2020, 7. 7). *Guardian*. 자료검색일 2010, 7. 19, 자료출처 <http://www.guardian.co.uk>
- the palermo connection. (2000.3). *American Vogue*. pp. 270-276.
- The palermo connection. (2000). *American Vogue*. pp. 270-276.
- Vergani, G. (Eds.) (2006). *Fashion Dictionary*. New York: Baldini Castoldi Dalai editore, Inc.
- west end girls. (2000, 2). *American Vogue*, pp. 158-160.
- who's that girl!? (2006, 6). *American Vogue*, pp. 104-106.
- why less is more. (2007, 11). *American Vogue*, pp.198-204.

(2010년 6월 9일 접수/2010년 7월 26일 1차 수정/2010년 7월 26일 게재확정)